

## News

### 말 바꾼 금융위 "은행 배당제한 6개월"→ "6개월 후 재판단"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그룹 및 은행 배당성향 20% 권고안과 관련해 "6개월 후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에 상황에 따라 6개월 후 배당 제한의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돼

### 올해 증시 주춤하니 신용대출 증가세도 꺾여

조선비즈

올해 1월 한달 신용대출 잔액 1조5791억원 증가한 반면 2월 18일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 29일 대비 1910억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쳐 증시 호조세가 작년 대비 정체되며 '빚투' 열기가 다소 사그라들었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조이기로 은행 대출 한도를 감소, 대출 금리 인상 조치에 기인

###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2배 확대.. '코로나 절벽효과' 대비

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보험 등 금융업계에 대한 종합검사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다 올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

### 더 센 대출규제 3월에 온다...자영업자·청년 벌써부터 한숨

매일경제

금융당국이 3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하면 대출시장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전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전문직이 아니면 근로소득자보다 신용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기 어려운데 DSR가 전면 확대되면 이들의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

###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다

한국경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  
이재용 부회장의 이사장직 교체를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재단은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교체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 870만명 가입한 舊실손보험료 19% 오른다

조선일보

보험금 청구 금액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져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구 실손보험 보험료를 15~17% 올릴 것으로 보여  
2017~2020년 누적 적자액 6.2조이며 작년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 이런 문제로 금융 당국 주도로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

### NH증권·하나은행 옵티머스 첫 제재심 결론 못내

EBN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3월 4일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제재심 결과는 권고안으로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 은행서 보험판매 5년래 최대... 생보사, 방카슈랑스 실적 '쑥'

이코노믹리뷰

대면영업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은행창구를, 은행은 수수료 이익 확대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면서 방카슈랑스 실적이 5년 사이 최대 규모 기록  
작년 11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는 5조8314억원으로 집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한 수치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